

다산포럼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두 분 다 당 안팎의 신임이 두터운 초선 의원으로 내년 총선에서 당의 공천이 거의 확실시되는 터여서 이번 불출마 선언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아깝다'는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불출마의 변을 들어보자.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어느새 저도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졌습니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 놓을 자신이 없습니다.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지조차 버거운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처음 품었던 열정도 이미 소진되었습니다."(이철

이철희·표창원 의원에게 박수를

희 의원)

"정 2015년 12월 27일 민주당에 입당, 정치를 시작하면서 '초심을 잃게 되면 쫓아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아울러 '초심을 잃게 된다면 쫓겨나기 전에 제가 스스로 그만둘 것'이라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정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 당리당락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정의'만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초심, 흔들리고 위배한 것은 아닌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며 보낸 불면의 밤이 많았습니다."(표창원 의원)

이들의 불출마 선언에는 공통점이 있다. 표 의원은 '정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초심이 흔들렸다고 했고, 이 의원은 '우리 정치를 바꿔 놓겠다'는 처음의 열정이 사라졌다고 했다.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 애초의 각오대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멀쩡하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전혀 다르게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 왔다. 이렇게 초심을 잃게 하는 국회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동물국회·식물

국회에 길들여져 재선·삼선을 노리고 있는데 두 의원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신선하다.

어느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12개 직업군 중에서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특권을 이용해서 각종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잘난 체하며 호통이나 치는 짧은 정말 역겹기 짝이 없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 정정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표창원), "단 하루도 부끄러짐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하겠습니다"(이철희)라는 말이 조금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두 의원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것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답은 논어의 '정자정야(政者正也)일 것이다. 이 말은 '정치란 올바름이다'로 해석되기도 하고, '정치란 바로 정하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전혀 다르게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 왔다. 이렇게 초심을 잃게 하는 국회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동물국회·식물

있다는 반증이다. 기원전 그리스의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가 "오늘날 정치를 하는 자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성품이 바른 사람이 아니다. 불학무식한 강패들에게나 알맞은 직업이 정치다"란 것을 보면 기원전 그리스에서도 정치가 '정'(正)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뮈는 "정치자들은 항상 똑같은 거짓말을 똑같은 말로 하고 있다"라 말했으며, 러시아의 흐루시초프는 "정치가란 결국 사발뽕이 없어도 다리를 놓겠다고 공약하는 자이다"라 말한 바 있다. 정치가가 되는 제일 요건이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까지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자조적(自嘲)인 탄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기나긴 '조국 터널'을 거치면서 우리는 국회의원의 민낯을 생생하게 보아 왔다. 정치가들은 더 이상 얌은 수작으로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 이철희·표창원 의원의 용기 있는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가 마음을 가다듬어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하겠습니다'란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기고

창조적으로 분노하라!



류재환
전남대 인문대학장

인간의 분노는 살고 있는 "시대의 여러 모순적인 면모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 내지는 현미경과도 같은 것"이라고 한다. 시대의 모순들을 비춰 주는 분노는 인간의 일상을 통해 해소되고 소비된다. 그래서 분노의 소비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분노의 해소와 소비 방식이 파괴적일 수도 있고 창조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직면한 문제에 분노하지 않는 '무관심'은 매우 위험하다. 이후 파괴적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인간의 분노는 인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본성이자 인간의 인간다움을 위한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그리고 이 자연스러운 행위는 '올바른' 가치 판단에 기인해야 한다. 작금의 보수와 진보 간의 분노는 인간다움을 위한 '올바른' 가치 판단에 기인하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 구동의 도구 중 하나가 '프레임'이라면 정치인들은 그 프레임 안에 가치와 차이를 담아가지 차별을 담아서 안 된다. 미움과 배제를 담아 국민을 양 갈래로 나누고 있는 지금의 정치 행위는 분노의 정치다. 그래서 올바르게 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 행위는 파괴적 분노의 결과이다. 파괴적 분노는 새로운 분노 생성의 단초가 될 수 있고, 체념과 자기 파괴로 공동체를 파멸로 유도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파괴 저항의 분노를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하게 분노해야 한다. '창조적 분노'는 '정당한 분노'(Anger with good reason)로부터 출발한다. 불의와 부조리한 현실 앞에 분노의 동기를 갖고 저항할 때 이 '정당한 분노'는 창조적 분노가 된다. 그리고 창조적 분노는 창조적 저항의 방식이 된다. 스테판 에셀이 자신의 저서 '분노하라'에서 "창조, 그것은 저항이며 저항, 그것은 창조"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저항, 그것은 창조"라는 말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 바로 창조다시 말해서 창조적 분노라는 의미이다.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위한 저항은 정당한 분노의 결과로 볼 수 없다. '정당한 분노'는 불의를 보고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거나 분노를 은폐하지 않는다. 달리 말해서 '정당한 분노'는 불의로 인한 고통을 타자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는 '역지사지'의 공감의 사유를 하게 해주는 분노이다. 이런 점에서 정당한 사회적 분노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창조적 분노'와 궤를 같이 한다. 결국 '정당한 분노'는 분노의 주체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창조적 분노'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에서 '정당한 분노'는 '톨레랑스'의 전통과 맞물려 있다. 프랑스어로 '관용'을 의미하는 '톨레랑스'는 "나와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 정신'으로써 요약될 수 있는 '톨레랑스'는 '편견에 치우침 없는 공평함'에 토대를 둔 '관용'과 '포용력'이다. 타인의 생각과 행동 방식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인정받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프랑스의 '톨레랑스'는 다름과 차이를 맹목적으로 '용인'(容認)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름과 차이의 인정은 분노의 창조적 승화의 과정 즉 설득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맹목적 용인은 또 다른 의미의 '강요'나 '강제'와 같은 파괴적 분노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톨레랑스'의 반대어인 '앵톨레랑스'(intolerance)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앵톨레랑스'는 불관용(不寬容)을 의미하며 원칙과 가치를 파괴하는 '극단'과 '배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톨레랑스'는 극단과 배제의 '앵톨레랑스'에 대해 단호히 맞서 쟁취하게 된 '관용'과 '포용력'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톨레랑스'라는 단어에는 '앵톨레랑스'에 맞서는 '정당한 분노'를 함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인들로 하여금 극단과 배제의 '앵톨레랑스'에 맞서게 하는 감성의 도구는 바로 '정당한 분노'이며, 이는 결국 '편견에 치우침 없는 공평함'을 지키기 위함이다.

조국 사태로 양분되어 있는 우리 사회는 극단과 배제의 불관용으로부터 우리와 국가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이다. "분노할 실마리를 잡아서 분노할 줄 알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저항할 줄 알되, 마음 속에는 비폭력의 심지를 굳게 세우고 참여하여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분노의 동기가 되는 원칙과 가치의 훼손에 대한 '정당한 분노'와 '비폭력'의 창조적 분노로 저항하라는 의미이다.

청춘 특특

지역 대학생들, 광주극장과 친해지길



서지현
조선대 법학과 4학년

최근 광주극장이 개관 84주년을 맞았다. 전국 유일의 단관 극장인 광주극장. 처음 들어섰을 때 800석 이상의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큰 규모에 압도당했다. 영화 한 편을 본 뒤 상영관 밖으로 나갔다. 광주극장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과 함께 1990년대부터 간판을 그려온 '간판쟁이' 박태규 화백의 손 간판 작품들을 극장 건물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었다. 마치 근대로 짧은 시간 여행을 떠나온 기분이었다.

광주극장은 지난 1935년에 개관해 급변하는 영화 콘텐츠 시장과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광풍 속에서도 84년째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오고 있다. 광주극장이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행보는 독립 영화와

예술 영화를 상영하는 예술 영화 전용관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광주극장을 지키기 위해 응원 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민들의 역할도 컸다고 할 수 있다. 폐관될 위기를 여러 번 겪은 광주극장은 지난 2015년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광주극장은 영화진흥위원회 '예술 영화 전용관 사업' 지원으로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됐지만 2015년 영화진흥위원회가 이 사업 자체를 폐지했고, 2016년부터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영화들을 의무 상영하는 극장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술 영화 유통 배급 지원 사업'을 강행한 것이다.

광주극장은 정부 지원에 따라 극장의 존폐가 좌우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광주극장 후원 회원제 방식'을 도입했다.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지역민들이 지속적인 후원에 동참함으로써 광주극장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찾아가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극장은 지역의 '공동체 극장'으로서 모범을 제시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광주극장은 '개관

84주년 광주극장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영화제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광주극장은 이번 영화제에서 15편의 예술 영화를 상영하고, 지난 10월 18일 오후 7시에는 광주극장만의 특별한 개막식도 진행했다. 박태규 화백이 직접 그린 손 간판을 관객들이 참여해 들어 올리는 '손 간판 상판식'이었다.

더욱이 이번 영화제에서 조선대학교 교수인 김희정 명예창작학과 교수가 감독을 맡은 영화 '프랑스 여자'가 개막작으로 선정돼 조선대학교 학생인 나에게 더욱 뜻 깊은 영화제가 됐다. 영화 '프랑스 여자'는 전주영화제 등 여러 영화제에 초청될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예술 영화다. 내년 개봉이지만 광주극장에서 영화제 개막작으로 특별 상영돼 미리 감상할 수 있었다. '소문대로' 배우들의 내면 연기가 인상적인 작품이었다. 25일 상영 이후에는 김 교수와 출연 배우인 김지영 씨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이어졌다고 한다.

안타까운 점은 광주극장의 이 같은 노력에도, 많은 지역 대학생들은 광주극장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멀티플렉스에서

는 좀처럼 만나볼 수 없는 예술 영화들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모른다는 것이다.

요즘 대학생들은 이색적인 경험을 찾아 해외까지 헤매면서 '인스타'에 사진을 올린다. 이런 대학생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광주극장에 가보라'고 제안하고 싶다. 현존하는 유일한 단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자체가 '이색적인 경험'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영화관에서는 단순히 영화만을 본다면, 광주극장에서는 영화를 보는 동시에 상영관에 살아있는 '클래식함'까지 느낄 수 있다.

물론 예술 영화들이 일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심층적인 세계관과 철학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대학생들에게 흥미롭지 않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광주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은 작품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은 비교적 '대중적인' 예술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다. 예술 영화를 통해 상업 영화가 담지 못한 다양한 가치를 엿볼 수 있다. 대학생들이 예술 영화를 주류 문화처럼 소비한다면 예술 영화계가 활성화될뿐더러 사회를 보는 관점도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社說

광주학생독립운동 유적 복원 서둘러야

광주에서 시작된 전국은 물론 해외로까지 확산한 학생독립운동이 다음달 3일이면 90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3·1운동 이후 최대의 독립운동이라는 평가와 달리 관련 유적지는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져 100주년을 앞두고 체계적인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그제 성명을 통해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세계사적 학생운동으로, 그 정신을 이어 받은 광주는 3·15의거와 5·18민주화운동을 이끌었다"며 "하지만 참여자들을 추모하고 현창하는 기념사업은 미흡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1929년 한일 학생 간에 충돌이 일어났던 옛 광주역과 청년 운동가들의 회합 장소이자 시민사회운동 및 민족교육의 요람이었던 흥학관 등은 유실되고 없다. 운동 참여자들의 학교였던 광주고보·광주농업학교·전남사범 건물도 마찬가지로, 1928년 완공된 광주여고보

(현 전남여고) 분관 건물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 또 운동을 주도했던 장재성 선생을 비롯한 많은 주역들이 아직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회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역사의 죄인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할 것을 광주시와 유관 기관에 제안했다.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대표 사적지 일대 곳곳 흥학관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원하고, 관련 유적지를 연결하는 1103번 시내버스를 신설하며 주역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과 인물전 출간을 서두르자는 것이다.

10년 후면 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을 맞는다. 남은 기간 동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광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복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도록 하는 것이 후손된 도리다. 정부와 지자체도 연구와 유적 복원 등 기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법률과 조례를 제정해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조선 의원 잇단 불출마 증진들도 응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미뤄 온 총선거획단 출범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내년 4월 총선 대비에 나선다. 총선거획단이 출범하면 선거홍보·정책·전략·기획 등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총선 준비 활동에 돌입한다.

이처럼 민주당의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물갈이'를 비롯한 쇄신 방식과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이철희·표창원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가장 답답했던 것은 당이 대통령 뒤에 숨는 것"이었다며 "조국 대응 이후 '뭘 일 있었어?'라는 식으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책임의 상당 부분이 당 대표에게 있다고 본다"며 이해찬 대표의 책임론을 처음으로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두 의원 외에도 비례대표 김성수·이응득·계운장·최은열 의원과 지역구 서형수 의원 등 다른 초선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 지역위원장 위주로 형성된 광주·전남 지역 공천 지형에도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처럼 간판급 초선 의원의 잇단 총선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쇄신론에 대한 당 주류나 열성 지지층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현재 여당의 중심 세력 기류가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인 데다, 일부 의원의 비판적 목소리만 있을 뿐 전반적 쇄신 무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단일내외만 강조하면서 한국당의 적폐를 비난하는 것만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려 하면 상황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제 '조국 사태'에서의 실책을 돌아보고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증진들이 응답해야 할 차례다.

無 等 鼓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25·최진리)의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혐오성 악플(악성 댓글)의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최근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도 혐오나 차별적인 악성 댓글 등을 불법 정보에 포함시키고, 공격당하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걸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위험 판결로 현실성이 없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역제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란 자체를 없애고 해당 언론사를 방문해 댓글을 달게 하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른바 '아우팅크식' 댓글 달기 방법이다. 이런 가운데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연례 뉴스 댓글을 이달 안에 중단하고, 댓글이 집중되는 인물 관련 검색어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혀

‘설리 법(法)’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한때 현행법상 악플 본 누구라도 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설리의 비극을 계기로 여론도 댓글 규제·처벌 강화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댓글 실명제를 근간으로 하는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2만 명을 넘어섰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 비율이 69.7%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명제 도입을 통한 악플 억제 효과에 의구심을 드러낸다.

그러나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서 대폭적인 양형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악성 댓글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홍보 강화와 처벌 사례를 최대한 공개하는 시스템도 요구되고 있다. 설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과 닮았다. 인터넷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악플 배제의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설 시점이다.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tu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3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